



삼일회계법인

2025년 상반기 경제 동향

관세전쟁에 따른 글로벌 경제 영향도 점검

삼일PwC경영연구원 | Issue Brief

May 2025



Table of contents

01 관세전쟁 진행 현황

02 관세전쟁의 영향

03 이슈 분석

이슈 1. 관세 정책에 따른 미국경제 혼란

이슈 2. 관세전쟁과 한국경제

이슈 3. 미-중 관세전쟁 경과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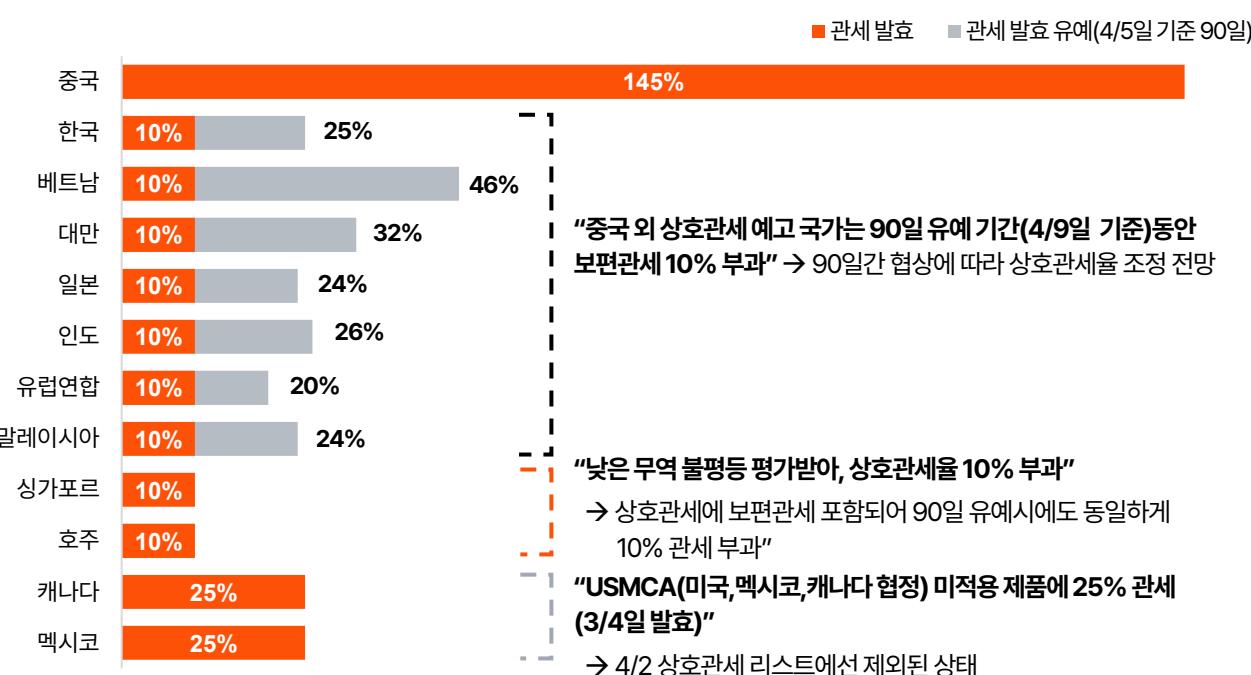
04 향후 전망

01. 관세전쟁 진행 현황

1 트럼프 2기 정부, 관세전쟁 개시

-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정치·외교·경제·사회 전 영역에서 미국 유일주의(America Only) 정책을 추진. 특히 취임 후 가장 강한 드라이브를 건 정책은 '관세'이며, 이로 인해 글로벌 경제의 혼란 가중
 - 미국경제에 방해되거나 불공정 교역이라고 판단되는 산업·국가를 식별해 고율 관세 부과
 - 보편관세, 상호관세, 산업별 관세로 구분하여 전방위적 관세 인상 추진
 - 보편관세: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물품에 공통적으로 10% 관세를 부과 → 4/5일 발효
 - 상호관세: 무역적자 등 반영하여 국가별 상이하게 부과 → 중국은 즉시 발효(4/2일). 이외 국가들은 7/9일까지 90일 간 유예하며, 협상에 따라 10% 하한선까지 낮출 수 있다고 언급
 - 산업별: 알루미늄·철강(3/12일 발효), 자동차(4/3일 발효)에 25% 관세. 반도체·의약품 등도 예정
- 관세 정책으로 인플레이션 재발 및 경기둔화 우려 급증. 이를 반영하여 금융시장도 변동성 극대화
 - 상호관세 발표(4/2일) 이후 글로벌 주식시장 급락. 인플레이션 우려 반영하여 채권금리도 하락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교역국별 관세 부과 현황(25.4.11 기준)



Source: 백악관, 삼일PwC경영연구원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에 따른 글로벌 증시 변동: 발표(4/2일) 이후 이틀간의 변화폭)



Source: Bloomberg, 삼일PwC경영연구원

주: 한국, 일본, 중국은 시차/영업일 반영하여 4/3~4/7 변화

2

각국의 대응: 강경 대응(중국, EU) vs. 협상 추구(일본, 대만, 베트남, 멕시코)

-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한 대응 방법은 국가별로 상이하나, 크게 '강경 대응' vs. '협상 추구'로 구분 가능
 - 낮은 미국 의존도, 단합된 대응력(경제 공동체) 등을 가진 국가는 '강경 대응'
 - 중국, EU, 캐나다 등은 미국에 보복관세 부과
 - 특히 중국은 트럼프 1기 무역전쟁 경험에 따른 대응력과 희토류를 기반으로 강력한 보복 단행
 - 무역·안보·경제 등에서 미국 의존도 높은 국가는 '협상'으로 상호관세 최소화 전략
 - 베트남, 대만, 일본, 한국 등은 '협상' 추구

주요국 관세 대응: 강경 대응

구분	주요 내용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복 관세 및 희토류 수출 통제 등으로 맞대응 - 6대 보복 추가 수단 준비: ① 미국산 농산품 관세 대폭 인상, ② 미국산 가금육 수입 금지, ③ 펜타닐 미중 협력 중단, ④ 미국 흑자 서비스 무역 제한, ⑤ 중국 내 미국기업 지식재산권 조사, ⑥ 미국 영화 수입 축소/금지 등 - EU·아세안과 협력 강화해 트럼프 2기 관세 대응
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복 조치로 맞대응 → 다만, 경제적 실익 양보하지 않는 선에서 협상 전망 - 미국의 EU산 철강·알루미늄 관세 발효(3/12)에 맞대응해, 4/15일부터 미국산 일부 상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으나, 미국의 상호관세 90일 유예에 맞춰 동일하게 보복관세 부과를 90일간 보류
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복 관세로 맞대응 : 미국에는 최대한의 타격, 자국에는 최소 영향으로 보복한다는 입장 - 미국의 수입산 자동차 25% 관세 발효에 맞대응해, 미국산 자동차 25% 관세 부과(4/9)

Sources: 언론보도 종합, 삼일PwC경영연구원

주요국 관세 대응: 협상 추구

구분	주요 내용
베트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정부와 관세율 인하 협상 → 경제적 실익 감수 의지 - 미국산 수입품 관세 0%까지 인하 및 미국산 수입 확대 의지 피력
대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 상호관세를 목표로 미국과 협상 진행(90일 유예 발표 후, 미국과의 첫 협상국) - 미국 투자 및 미국산 농산물·에너지 수입 확대 카드로 협상 전망
인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2월, 대미 무역흑자가 큰 38개 품목 관세 인하해, 미국과의 무역 갈등 선제 완화 조치 - 현재 미국과 진행 중인 양자무역협정(BTA) 통해 관세 인하 및 비관세 장벽 완화 유도. 늦어도 '25년 내에 BTA 체결 목표'
멕시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정부와의 연대 의지 강조 및 협상 통한 관세 대응 - 미국 정부의 범죄자 인도 요청 적극 협조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산 LNG 수입 확대, 대미 투자규모 1조 달러 증액 등의 미국 투자 통한 '협상' 진행 - 중국 견제 목적의 한미일 쿼드 등의 다자간 안보 협력 촉진 및 '27년까지 방위비 2배(트럼프 1기 대비) 증액 약속'
말레이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상 통한 관세 대응이 기본적 전략 - 아세안 의장국으로써, 아세안 공동 입장 구축하여 공통된 협상 진행 추진

Sources: 언론보도 종합, 삼일PwC경영연구원



자세한 내용은 삼일PwC경영연구원의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 주요 국가 및 기업의 전략적 대응(2025. 05)' 참조

3

협상 진행 현황

- 미국은 '25.5월부터 주요국과 관세협상을 시작하였으며, 영국(5/8일) 및 중국(5/12일)과 협상 완료

- 미-영 합의(5/8일): 보편관세(10%) 적용 지속. 자동차·철강 등의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관세 인하

미국▶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국산 제품에 대한 보편관세(10%) 적용 지속• 자동차에 부과 중이던 관세 인하(25% → 10%),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25%) 철폐
영국▶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탄올, 소고기, 농산물, 기계류 등 미국산 제품에 대한 시장 개방• 보잉 항공기 100억 달러 수준 구매

- 미-중 합의(5/12일): 향후 90일 간, 양국 각각 고율관세 대폭(-115%p) 인하

미국▶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중국에 부과한 145%의 관세를 30%로 인하(90일 간 유지)<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편관세 10%에 펜타닐 관세 20% 추가하여, 최종 30% 관세 적용- 상호관세(24%)와 보복관세(91%)는 유예
중국▶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 미국에 부과한 125%의 보복관세를 10%로 인하(90일 간 유지)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향후 경제 및 무역 관계에 대한 지속적 논의 위해 상설 협의체 구성 합의

- 미-중 합의로 관세전쟁 다소 완화되는 분위기이나,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상존 → 과도한 낙관은 경계

- 영국·중국과의 협상에서 보여진 것처럼 미국은 전방위적 보편관세(10%) 정책을 고수할 것으로 판단. 이에 따라 트럼프 2기 정부 이전보다 확연히 높아진 관세가 'New Normal'이 될 것으로 전망
- 중국과의 협상도 '최종 합의'가 아닌 '90일 유예'인 만큼, 여전히 리스크가 상존
- 가시화되고 있는 의약품, 반도체 등의 품목별 관세도 부담요인

02. 관세전쟁의 영향

실물 부문 경제 성장을 하락 + 인플레이션 안정화 지연

- [성장을] 관세전쟁에 따른 교역 둔화로 전망치 하향 조정('25년 글로벌 전망: '25.1월 3.3% → '25.4월 2.8%, IMF)**

글로벌 경제성장을 전망치의 변화(IMF)		시나리오	'25년(E)	'26년(E)
전망 시점				
'24.10월, '25.1월	관세전쟁 미반영		3.3%	3.3%
'25.3월	품목별 부분 관세		3.2%	3.2%
'25.4.4(관세 조치 발표 직후)	보편관세(10%) + 상호관세		2.8%	3.0%
'25.4.9(관세 유예 + 보복 관세)	상호관세 유예(90일) + 중국과의 보복 관세		2.8%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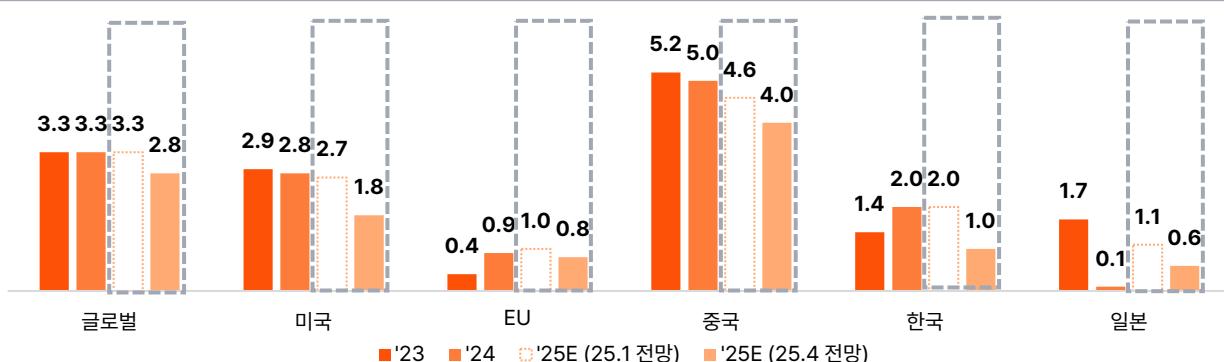
Sources: IMF, 삼일PwC경영연구원

- 각국별로는 대부분 국가의 성장을이 하락하는 가운데, 미국·중국·한국의 전망치가 큰 폭 조정**

- 미국: 고율관세로 인플레이션 재발 우려 증가 → 금리인하 속도 둔화되며 '25년 성장을 전망치 하향
- EU: 민간소비 중심으로 경기 회복 진행 중이나, 교역조건 악화로 성장을 둔화
- 중국: 미-중 관세전쟁의 여파로 충격 불가피. 정부의 고강도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전망치 하향
- 일본: 임금 상승 및 기업 업황 개선 중이나, 대외 불확실성이 증가로 회복세 미약
- 한국: 관세로 수출둔화 불가피. 또한, 대내 정치 불확실성에 따른 내수 부진까지 더해지며, 성장을 전망 하향

2025년 주요국 경제 성장을 전망치의 변화

(단위: %)



Source: IMF, 삼일PwC경영연구원

- [인플레이션] 무역분쟁으로 인해 전망치 상향 조정 ('25년 전망: '24.10월 2.0% → '25.4월 2.5%, 선진국 기준, IMF)**

- 절반 이상의 G20 국가에서 '26년까지 물가상승률이 중앙은행 목표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
- 다만 아직까지 인플레이션 리스크 재발 가능성은 낮다고 언급

'25년 인플레이션 전망의 변화: '24.10월 vs '25.4월 (IMF)

(단위 : %)

선진국	미국	EU	중국	일본	한국
2.0 → 2.5	1.9 → 3.0	2.0 → 2.1	1.7 → 0.0	2.0 → 2.4	2.0 →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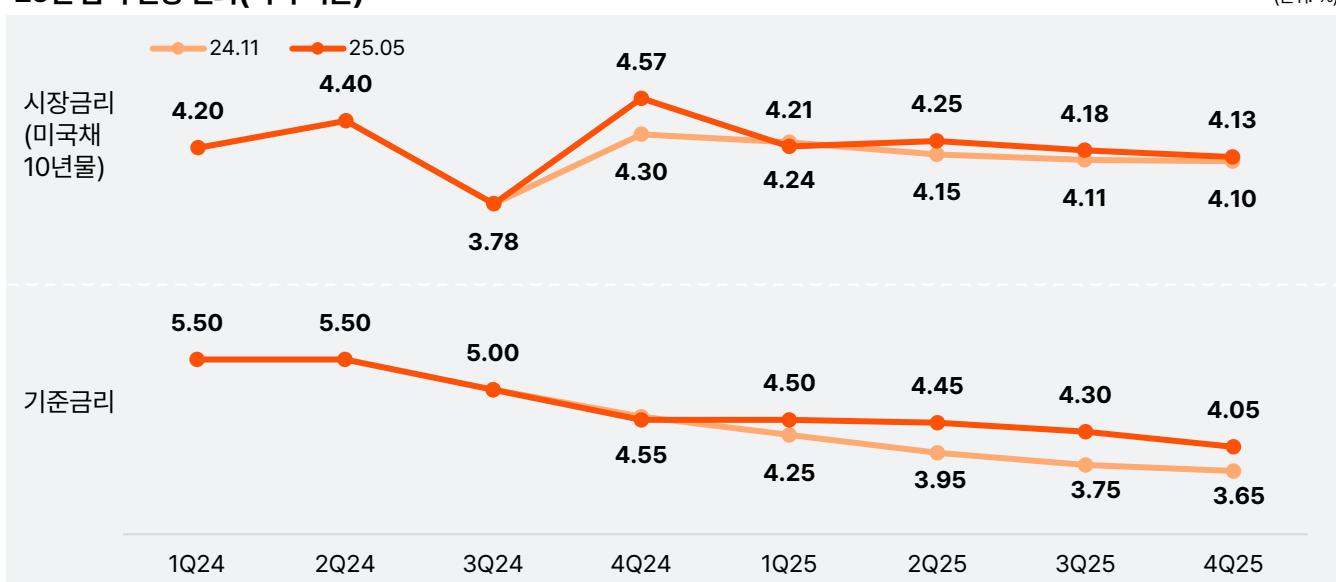
Source: IMF, 삼일PwC경영연구원

금융 부문

금리인하 지연 + 달러화 가치 하락 → 금융시장 변동성 극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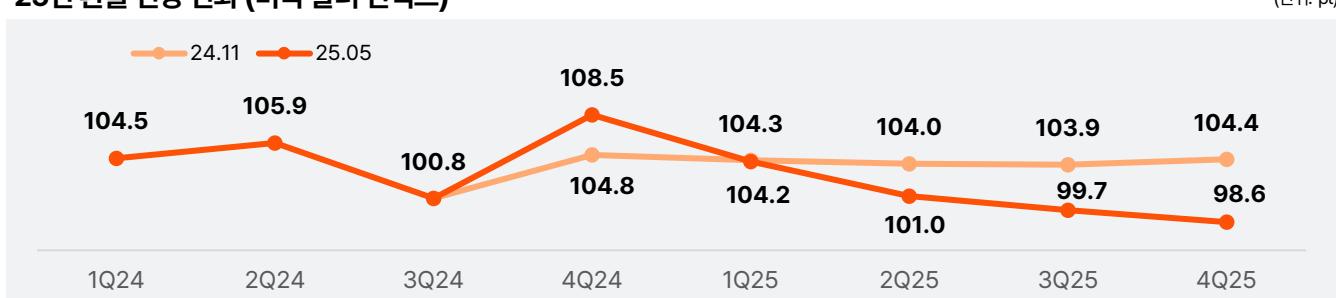
- [금리] 인플레이션 재발 불안감에 미 국채시장 변동성 증가, 금리 인하 속도도 둔화
 - 미 연준, 기준금리 인하 지연 시사 vs. 트럼프 2기 행정부, 금리 인하 압박 → 시장 혼란 가중
- [환율] 미국경제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달러화 약세 전환. 반면, 한국의 원달러 환율 전망치는 상향조정
 - 달러 인덱스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 가파르게 상승. 이후 관세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교역 축소, 기축통화로서 미달러화 지위 약화 가능성 대두되며 약세 전환
 - 원달러 환율은 달러 약세 및 최근 아시아 통화 강세 추이와 동반하여 소폭 강세(환율 하락) 전환. 다만, 주요 기관은 관세전쟁으로 인한 수출 감소 등을 고려하여 원달러 환율을 여전히 높게 전망

'25년 금리 전망 변화(미국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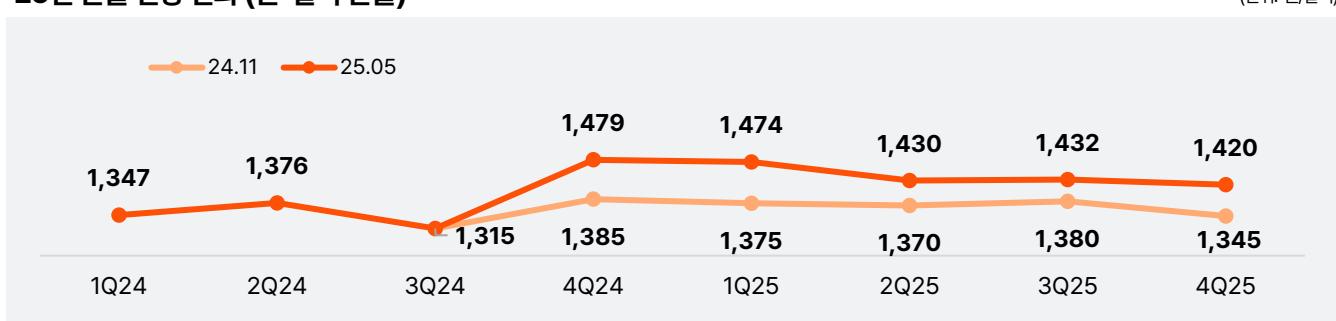
Sources: Bloomberg, 삼일PwC경영연구원

'25년 환율 전망 변화 (미국 달러 인덱스)



Sources: Bloomberg, 삼일PwC경영연구원

'25년 환율 전망 변화 (환-달러 환율)



Sources: Bloomberg, 삼일PwC경영연구원

03. 이슈 분석 ① 관세 정책에 따른 미국경제 혼란

●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미국경제도 충격을 피할 수 없을 전망

- '25년 미국 GDP 성장률 전망 -0.9%p 하향 조정 (IMF, '25.04)
- 또한, '25.1분기 GDP가 전분기 대비 -0.3% 역성장. 마이너스 성장은 '22.1Q 이후 3년 만에 나타난 현상
 - 민간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수출 급감·정부지출 감소·소비 둔화 등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 * 소비지출: 계절적 요인(겨울 한파) 및 관세전쟁에 따른 소비자심리 악화와 자산가격 하락으로 성장을 둔화
 - * 순수출: 관세 인상에 대비한 전례 없는 수입 급증으로, 순수출이 사상 최대폭으로 성장률에 마이너스 기여

미국 GDP 성장률 및 항목별 기여도(전기비 연율, 계절조정 반영)

	실질성장률 (%)	성장률 기여도(%p)					
		소비	기업투자	주거투자	순수출	정부지출	재고 변화
'24.4Q	2.4	2.70	-0.41	0.22	0.26	0.52	-0.84
'25.1Q	-0.3	1.21	1.29	0.05	-4.83	-0.25	2.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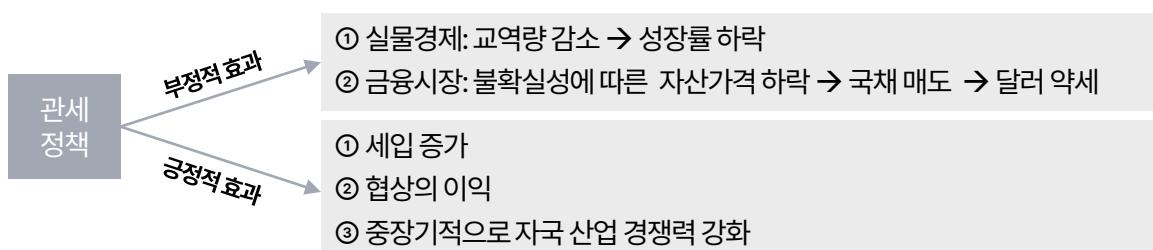
Sources: Bloomberg, 삼일PwC경영연구원

● 관세전쟁에 따른 미국경제 혼란의 원인은 아래 3가지의 복합 결과로 보여짐

1 잘못된 정책 수순

- ✓ 통상적으로 '관세인상 예고 후 협상': 실질적 영향이 있기 전 협상이 타결 → 실물 경제 적응 가능
- ✓ 현재 '선 관세 부과 후 협상': 최고관세율 부과 후 협상결과에 따라 디스카운트 → 실물 경제에 즉각 충격

2 미국경제 입장에서 긍정적 효과가 나오기 전 부정적 효과가 압도



3 미국 금융시장의 취약성 노출

금융시장 불안정성으로 채권 금리 급변

미국채 선물시장에서 Basis trade*(차익거래 전략)을 펼쳐온 해지펀드들, 마진콜 직면하며 국채 급매

레버리지 비율이 매우 높은 Basis trade의 특성으로 미국채 변동성 증폭

국채 경매 부진, 장단기 금리차 확대

경기침체 우려 가속화, 미국채의 안전 자산 지위에 대한 신뢰 약해지며 달러 약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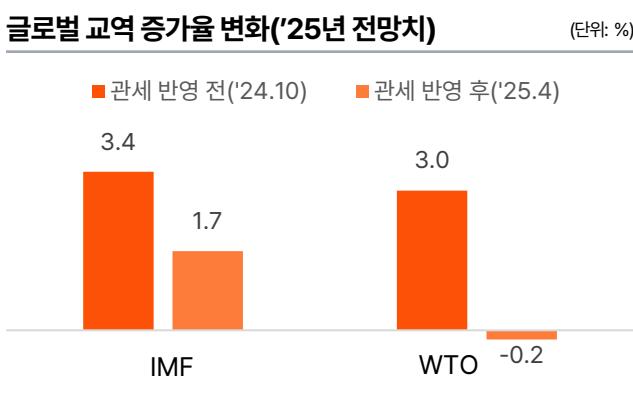
* Basis trade: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격 수렴을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을 목표로 현물자산 및 관련 파생상품(일반적으로 선물계약)의 포지션을 상쇄하는 금융 전략

03. 이슈 분석 ② 관세전쟁과 한국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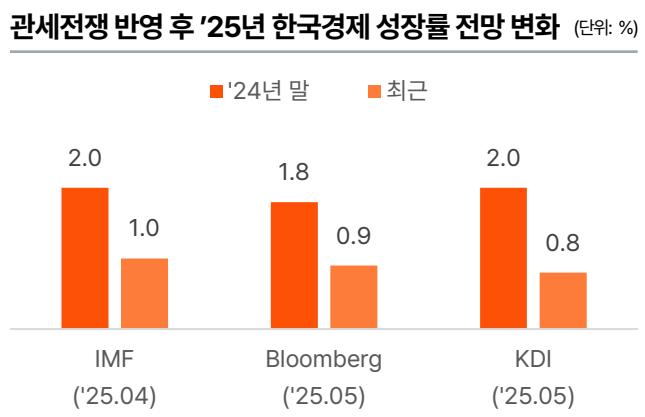
- 관세전쟁으로 글로벌 교역량 및 경제성장을 하락 전망**
 - '25년 글로벌 교역 성장을 -1.7%p, 글로벌 GDP -0.5%p 하향 조정 (IMF, '25.04)
- 한국 또한 관세 영향으로 수출 감소 및 소비심리 악화 불가피. 또한 대내 정치 불안으로 적절한 외교 대응이 어려워지며 성장을 전망 큰 폭 하향**
 - 한국경제 '25년 성장을 전망치 -1.0%p 하향 조정 (IMF, '25.04)
 - [관세의 1차 영향] 주요 교역국의 성장을 하락으로 수출에 하방 압력 발생
 - [관세의 2차 영향] 불확실성에 따른 소비심리 악화로 내수 부진

[관세의 1차 영향] 주요국 경제성장을 하락에 따른 한국경제 영향도				
국가	한국의 교역비중 ('24년)	연구 결과	관세전쟁에 따른 GDP 전망치 조정 (IMF, '25.04)	한국에의 영향
중국	수출: 19.5% 수입: 22.1%	중국 성장을 1%p 하락 시, 한국경제 성장을 0.37%p 하락 (국제금융센터, '25.04)	'25년 중국 성장을 -0.6%p 하향조정	한국 GDP -0.22%p 감소
미국	수출: 18.7% 수입: 11.4%	미국 성장을 1%p 하락시, 한국경제 성장을 0.11%p 하락 (현대경제연구원, '25.04)	'25년 미국 성장을 -0.9%p 하향조정	한국 GDP -0.10%p 감소
EU	수출: 10.0% 수입: 10.2%	EU 성장을 1%p 하락시, 한국경제 성장을 0.05%p 하락 (한국은행, '22.05)	'25년 EU 성장을 -0.2%p 하향조정 (IMF, '25.04)	한국 GDP -0.01%p 감소

Sources: 각 기관, 삼일PwC경영연구원



Sources: 각 기관, 삼일PwC경영연구원



Sources: 각 기관, 삼일PwC경영연구원

● 미국은 글로벌 보편관세(공통 10%)와 국가별 상호관세(한국 25%) 외에도 특정 산업에 대한 관세 부과

- 전 산업이 관세전쟁 영향을 받는 가운데 자동차·철강 등은 단기적 충격 불가피. 반면, 조선·배터리 등은 중장기적으로 반사이익 기대 가능
 -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자동차 및 차량용 부품, 철강 등 수출 감소 불가피
 - 對 중국 중간재 수출 위축. 또한 중국의 '미국 外 시장 밀어내기'로 글로벌 시장경쟁 치열해질 가능성 높음
 - 반면, 미-중 갈등 고착화 시 조선·배터리 등 중국과 경합 품목들은 미국 시장 내 한국 제품들의 상대적 가격 경쟁력이 제고되는 반사이익도 기대 가능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 산업별

발효/예고일	대상	내용
3/12일 발효	철강 알루미늄	해외산 '철강·알루미늄' 및 일부 '철강·알루미늄 사용하여 생산된 파생상품' → 25% 관세 부과
4/3일 발효	자동차	해외산 승용차 및 소형 트럭 → 25% 관세 부과* * 다만,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원산지 기준 충족 시, 미국산 가치는 관세 면제
5/3일 발효	자동차 부품	130여개 자동차 부품 품목 → 25% 관세 부과* * 非 미국산 품목에만 관세를 부과하는 절차 수립 전까지 USMCA 요건 충족 품목 관세 미 적용 (한시적)
4/14일 예고 (발효 미정)	반도체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한 국가 안보 조사 개시(무역확장법 232조)
4/14일 예고 (발효 미정)	의약품	'의약품과 의약 원료'에 대한 국가 안보 조사 개시(무역확장법 232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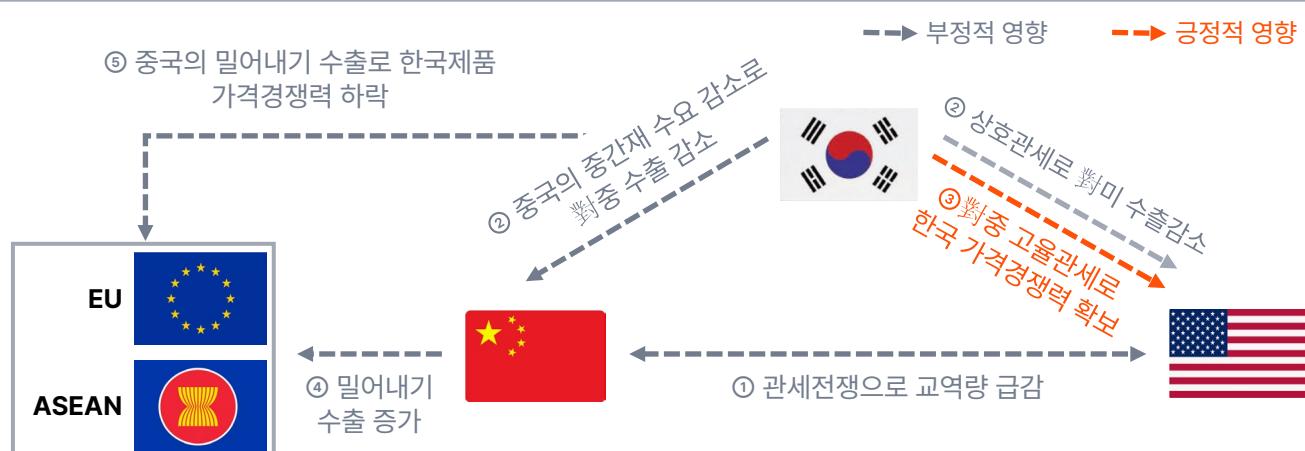
Sources: 미국 상무부, 언론종합

대미 수출 내 주요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24년 기준)



Sources: 무역협회, 삼일PwC경영연구원

관세전쟁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의 파급경로: 상호관세(중국 145%, 한국 25%) 부과 가정시



Sources: 삼일PwC경영연구원

● 부진한 수출 및 내수 반영하여, '25년 기업이익 전망 하향 조정(직전 전망치 대비 영업이익 -9% 감소)

- '24년은 반도체, 조선 중심으로 수출 개선이 전체 시장을 견인. 화학·철강 등의 소재 분야는 부진
- '25년은 관세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교역 감소, 국내 정치 리스크 등으로 기준 대비 기업 실적 전망치 하향
 - 특히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소재(화학, 철강)와 IT 부문에서의 실적 전망치가 큰 폭 하향

전 업종 실적 현황 및 전망											
(단위: 조 원)	매출액					영업이익					
	'23	'24	'25E	YoY	직전 대비* 전망치 조정	'23	'24	'25E	YoY	직전 대비* 전망치 조정	
전체	2,111	2,247	2,378	6%	0%	122	193	240	24%	-8%	
에너지	349	349	365	4%	1%	14	9	17	93%	-11%	
화학	117	113	120	6%	-6%	3	0	4	9167%	-42%	
철강	119	113	114	1%	-3%	6	3	4	31%	-26%	
건설	105	105	100	-5%	-5%	4	2	5	145%	-5%	
기계	85	88	93	7%	0%	6	6	7	25%	-3%	
조선	57	71	79	11%	0%	1	4	6	75%	0%	
운송	80	90	98	9%	9%	6	10	9	-9%	9%	
자동차	383	405	423	4%	1%	33	35	36	2%	-4%	
호텔,레저	6	7	7	6%	-4%	1	1	1	22%	-8%	
소매(유통)	72	73	76	4%	-3%	2	2	3	47%	-5%	
음식료	97	100	104	4%	0%	6	7	7	10%	0%	
건강관리	27	30	36	17%	1%	4	4	6	64%	-6%	
은행	-	-	-			28	31	32	3%	-1%	
SW(인터넷)	53	58	62	8%	-2%	5	6	8	27%	-5%	
IT하드웨어	46	50	52	5%	-3%	2	2	3	45%	-18%	
반도체	303	381	424	11%	-2%	0	58	71	22%	-16%	
통신서비스	58	59	61	3%	0%	4	3	5	56%	6%	
유트리티	154	156	163	5%	1%	-2	12	17	40%	10%	

* 직전 대비 변화율: '24.11월 vs. '25.5월

* 2025년 5월 기준 컨센서스 존재하는 기업 한정: 총 493개사. 전체 상장사 매출 중 77% 차지

Source: Quantwise

03. 이슈 분석 ③ 미-중 관세전쟁 경과와 전망

경과

미-중 관세전쟁 경과: 중국의 대응을 중심으로

-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중국에 가장 먼저 관세 부과. 중국 또한 미국에 즉각 대응하며, 치킨게임 격화**
 - '25.2월 미국의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한 10% 추가 관세 발표 이후 관세전쟁 본격화
 - '25.4.12 기준 미국은 중국에 총 145% 관세 부과, 중국은 미국에 총 125% 관세 부과
 - '25.5.12 양국은 각각 115%p씩 관세를 인하하여, 90일 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협의
- 중국은 낮아진 미국 의존도, 핵심 광물, 기술 자립도 등의 카드를 배경으로 미국에 강경 대응 입장**
 - 트럼프 1기 이후 지속적으로 미-중 무역 갈등을 겪어온 중국은 미국 무역 의존도를 줄이고, 수출 시장을 다각화함으로써 관세 대응력을 높인 상태
 - ✓ (중국의 미국 무역 의존도 변화 추이) 미-중 교역 규모: 6,598억달러('18년) → 5,824억달러('24년)
 - ✓ (무역 시장 다각화) 중국 수출에서 미국 차지 비율 19%('18년) → 14.7%('24년)로 하락한 반면,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국가가 차지하는 비율은 상승
 - 중국은 전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69.2% 차지(1위 생산국)하는 국가로, 핵심 광물도 미국발 관세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
 - 또한, '21년 이후 '14차 5개년 계획'을 통해 8대 산업 집중 육성하여 기술 자립도가 향상된 상황
 - ✓ (8대 산업) △희토류 등 첨단 신소재 △고속철 등 중대 기술 장비 △스마트 제조 및 로봇 기술 △항공기 엔진 및 가스터빈 △베이더우 위성위치 확인 시스템 응용 △신에너지 차량 및 스마트카 △첨단 의료 장비 및 신약 △농업 기계 장비
 - ✓ (중국의 기술 수준) 미국 대비 핵심기술수준 76%('18년) → 83%('23년)로 상승. EU (94.7%), 일본(86.4%) 대비 낮으나 한국(81.5%)보다 높은 수준

미-중 무역전쟁 경과

'25.5.20기준

미국		중국	
2/4일	모든 중국산 10% 관세	미국에 석탄LNG 15%, 원유 등 10% 추가 관세	2/10일
3/4일	중국산에 10% 추가 관세, 총 20%	미국 농수산물 10~15% 추가 관세	3/10일
4/2일	중국산에 34% 상호관세 추가, 총 54%	모든 제품 34% 보복 관세, 중국산 희토류 및 희토류 자석 수출 제한	4/4일
4/9일	중국 상호관세 84%로 인상, 총 104%	맞불 대응으로, 미국에 총 84% 관세 인상	4/9일
4/10일	중국 상호관세 21% 추가, 총 125%	미국 84% 관세 즉시 발효	4/10일
4/11일	중국 펜타닐(마약성 진통제) 지적하며 20% 추가 → 총 145%	미국 관세 총 125%로 인상 발효	4/12일
5/12일	중국산에 부과하던 관세를 115%p 인하하여, 90일간 유지 → 총 30%	미국 관세 115%p 인하하여 90일간 유지 → 총 10%	5/12일

Sources: 언론보도 종합, 삼일PwC경영연구원

- '25년 중국 GDP 성장을 전망 -0.6%p 하향 조정 (IMF, '25.04)
 -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정부 부양책에 힘입어 1분기 경제 지표는 선방했으나, 2분기부터는 관세전쟁의 본격적 영향으로 성장을 둔화 가능성 높음
 - 이에, 중국정부는 관세전쟁으로 인한 수출 둔화에 대비해 내수 성장전략을 한층 강화하는 움직임
 - 무역전쟁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는 전년과 유사한 '25년 성장을 목표치 5.0% 제시하며, 내수 집중 육성 계획
 - 3월 전인대¹⁾에서 제시된 올해 정책 우선순위는 '전방위적 내수 확대'. 이를 위해 소비 보조금 확대(이구환신), 민간투자 장려, 미래 첨단 산업 육성 등을 추진
 - 해당 정책의 영향으로 역대 최대 수준의 재정지출 예상: GDP 대비 재정적자율(24년 3% → 25년 4%)
- 1)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중국의 최고권력기관으로 매년 3월 국가 운영의 주요한 방향성 제시

전인대 주요 경제 목표 및 실적

구분	'23		'24		'25
	목표치	달성치	목표치	달성치	목표치
실물 경제	GDP성장률	5.0% 내외	5.2%	5.0% 내외	5.0%
	물가상승률	3% 내외	0.2%	3% 내외	0.2% 2% 내외(하향)
	실업률	5.5% 이내	5.2%	5.5% 이내	5.1% 5.5% 이내
통화 정책	M2(YoY)	명목성장률	9.7%	명목성장률	7.2% 명목성장률
재정 정책	재정적자율 (% of GDP)	3.0%	3.8%	3.0%	3.0% 4.0%(상향)
	지방정부 특수채 (조 위안)	3.8	3.9	3.9	4.0 4.4(상향)

Sources: 전인대 업무 보고, 삼일PwC 경영연구원

- 다만, 누적된 재정적자와 3년째 지속되는 디플레이션은 정책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는 리스크 요인
 - 국가채무 증가 등을 근거로 신용평가기관 Fitch는 중국 신용등급을 18년 만에 처음으로 하향
 - 아직까지 주요국 대비 중국의 정부부채는 낮은 수준이나,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는 것이 우려
 > GDP 대비 중국정부 부채 비율: '20년 70.2% → '22년 77.4% → '24년 85.7%
 - 또한, 3년째 이어지는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저물가)은 통화정책의 파급력을 약화시키는 요인
 - '23년부터 진행된 디플레이션은 '1960년 이후 최장기간 지속된 이례적 현상
 - 이에 따라 통화정책의 파급력 감소하며, '금리 인하 → 신용창출 → 경기회복'이라는 공식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고 있음
 - 금번 전인대에서 중국정부가 소비자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20년 만에 3.0%에서 2.0% 낮춘 것 또한, 당분간 수요 부진에 따른 디플레 압력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판단

04. 향후 전망

리스크

글로벌 주요 리스크 점검

- 향후 글로벌 경제는 상방 요인보다 하방 리스크가 우세한 상황

Upside
-Risk

- 지역별 다자간 무역 협정 체결
 - 디지털, 서비스 무역과 같은 협정은 추가적인 시장 왜곡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무역의 긍정적 효과 극대화 가능
 - EU 단일 시장 등 새로운 국제 협력 및 지역 통합 확대, 무역 파트너 다변화
- 지역 분쟁 완화
 - 원자재 가격 하락, 생산자원 재분배 등 경제 성장에 긍정적 기여
 - 분쟁으로 인한 부정적 파급효과(GDP 5~10%) 해소
- 규제 완화, 시장 통합 등 구조 개혁 추진: 기업 활력, 생산성 향상, 잠재 성장을 상승
- AI 기술 발전과 적용 확대: 산업 전반에 걸친 혁신 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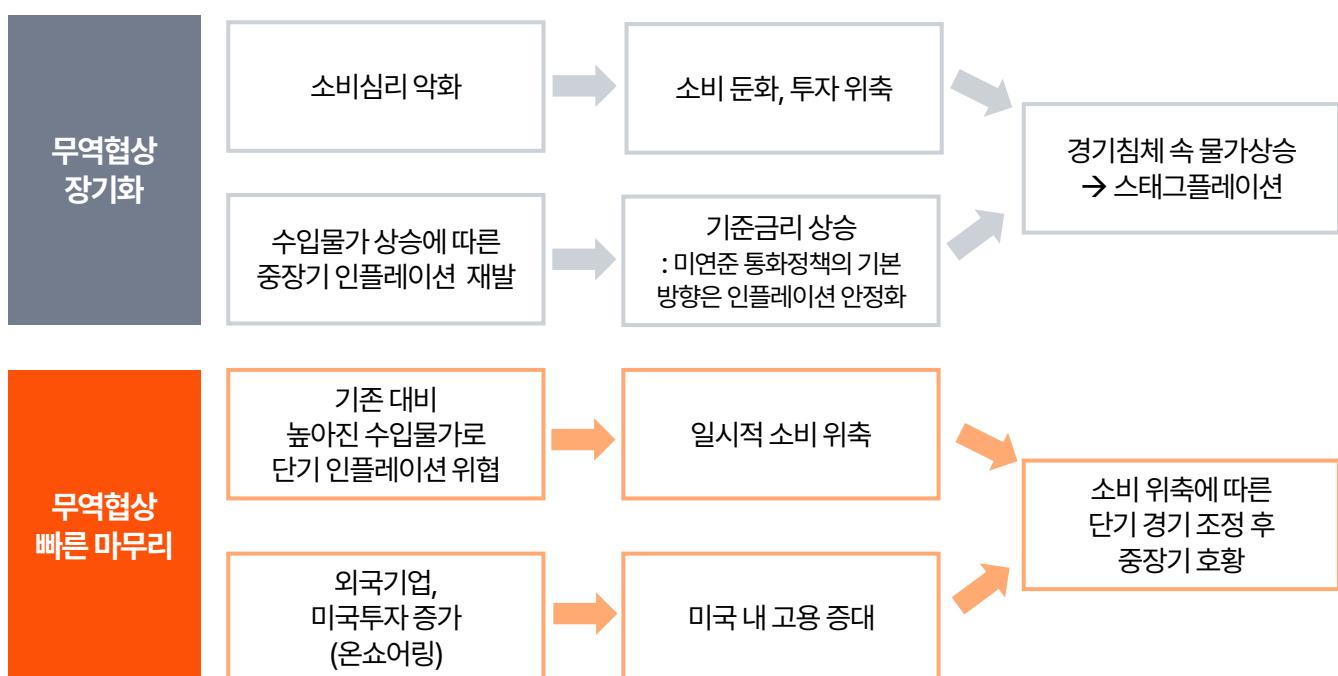
Downside
-Risk

- 무역 갈등 심화 및 불확실성 지속
 - 무역 전쟁 심화는 세계 경제 성장과 거시금융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
 - 새로운 무역 클러스터 등장은 외국인 직접 투자 흐름 분산 → 자본 축적에 부담
 - 수입 가격 상승, 환율 불안정, 필수품 공급 제한 등으로 인플레이션 재촉발
 - 생산 단위 재배치, 기술적 분리, 신용 축소 등으로 자원 배분 비효율성 심화
 - 경제 양극화로 사회 불안 증가, 구조개혁 추진에 어려움 야기
- 각국의 재정 소진, 높은 정부 부채 수준, 장기금리 상승으로 정책 운용 제약
 - 재정 정책: 팬데믹, 러-우 전쟁 등 대응 과정에서 정부 부채 급증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이자부담 급증하며 이중고
 - 통화 정책: 인플레이션 우려로 통화정책 운신의 폭 축소

향후 전망 승자독식 vs. Loser Game

- 미국이 협상의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관세 인상으로 미국 경기 침체 압력도 동반 확대되는 중
 - 트럼프 2기 정부 관세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중국의 기술 견제 및 중국 중심 공급망 약화
 - 관세 전쟁의 영향으로 글로벌 성장을 동반 하락 중이며, 미국 또한 부정적 영향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
 - 무역협상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관세가 각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판단하는 데 시간이 소요될 것
 - 관세로 인한 미국 실물경제 둔화 폭이 얼마나 될지 가늠하기 어렵지만, 강경한 기조를 고수할 경우 '미국경제 예외주의'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
- 협상이 어떻게 타결되던지, 과거 대비 높은 관세로 EU·중국·한국 등 주요국의 성장률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 반면, 미국경제 성장률은 ▲무역협상에 걸리는 시간과 ▲ 미국 가계소비 회복 속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전망
 - 무역협상이 장기화된다면 고율 관세로 미국 경기가 급격히 약화되고, 인플레이션이 재발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 국면에 빠질 가능성 높음
 - 반면, 무역협상이 빠른 시일 내 마무리된다면, 중장기적으로 미국경제 독주가 지속될 가능성도 존재

무역협상에 따른 미국경제 성장 경로



Sources: 삼일PwC경영연구원

Author Contacts

오선주 수석연구위원

삼일PwC경영연구원

sunjoo.oh@pwc.com

강수정 연구원

삼일PwC경영연구원

sujeong.j.kang@pwc.com

삼일PwC 경영연구원

최재영 경영연구원장

jaeyoung.j.choi@pwc.com



삼일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의 간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 및 지식전달을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구체적인 회계이슈나 세무이슈 등에 대한 삼일회계법인의 의견이 아님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간행물의 정보를 이용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삼일회계법인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본 간행물의 정보와 관련하여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삼일회계법인 전문가의 자문 또는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S/N: 2505W-RP-055

© 2025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 "PricewaterhouseCoopers" refers to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or, as the context requires, the PricewaterhouseCoopers global network or other member firms of the network, each of which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